

## 연애소설과 젠더 질서 재구축의 논리

— 김내성의 『실락원의 별』을 중심으로—

이선미\*

1. 『실락원의 별』과 젠더
2. 사랑하는 방법을 계몽하는 사회
3. 연애결혼, 인격적 관계로서 ‘부부’, 여성적 판타지
4. 결혼을 상상하지 않는 연애, 결혼 바깥의 섹슈얼리티, 근대 이후의 여성
5. 결론

### 국문요약

해방 후 정치적 자유는 여러 방면의 사회문화적 해방과 자유의 계기가 되며, 성적 해방과 자유는 대중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는다. 이 시기 연애는 3·1운동 이후 청년문화로 떠오른 연애와는 다른 방식으로 ‘애육’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담론화한다. 이 시기 대중작가인 정비석과 박계주의 소설은 연애와 그에 동반되는 욕망으로서 애육을 다루면서 사랑을 계몽하는 방식으로 대중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 소설의 연애서사는 애육을 단지 욕망으로만 표상하지 않고, 서사를 부여함으로써 낭만적으로 포장하고 미화한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연애·애육을 둘러싼 관념들이 생겨난다. 전후에 들어서면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되고, 연애와 애육을 동반하는 사랑은 여성적이며 향락적인 것으로 젠더화되고 타자화된다. 『자유부인』의 인기는 이런 성 관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반면, 김내성의 『실락원의 별』은 변화하는 여성의 인식과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사랑과 애육에 매개된 근대적 주체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젠더 질서를 제안하는 작품이다. 강석운과 그의 아내 김옥영의 관계를 통해서도 낭만적 사랑에 입각한 일부일처 결혼제도의 의미를 환기함으로써 근대적 사랑과 근대적 주체를 제안하고 있으며, 강석운과 고영림의 관계를 통해서도 사랑의 감정적 속성과 결혼제도 바깥의 섹슈얼리티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탈근대적 사랑과 탈근대적 주체를 제안한다.

김내성의 연애소설은 정비석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대중문화의 보수성, 즉 가부장적 젠더 질서로 수렴되는 젠더표상을 재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텍스트라 할 것이다.

\* 동국대 BK연구교수

(주제어: 연애소설, 애육, 박계주, 정비석, 김내성, 연애결혼, 섹슈얼리티, 근대성/탈근대성)

## 1. 『실락원의 별』과 새로운 젠더

8.15 해방은 정치적 해방과 자유를 던져주는 동시에, 성적 해방과 자유를 던져주었다. 당대의 논자들 사이에서도 감정이나 생활에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변동으로 논의될 하나의 큰 변화요, 결절점이었다. 정치적 해방은 정치적 자유의 문제를 논의하게 하며, 정치적 해방으로 만들어진 사회환경은 여러 가지 자유의 담론들이 생산되면서 문화적 변화를 야기한다.<sup>1)</sup> 미군정기로 시작된 해방 후 사회는 미국의 문화적 영향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담론이 형성되고, 성적 자유와 해방의 논의들이 정치적 해방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남녀가 만나고 서로 사랑하는 문화풍토조차 생경했던 근대초기에도 3·1 운동으로 시작된 자유의 열망이 일명 ‘연애의 시대’<sup>2)</sup>를 열었다 할 정도로 자유연애는 최대 관심사였다. 그러나 만남조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상황에서 연애는 그저 문학청년들의 장식이거나 지식인들의 박래품일 따름이었다.<sup>3)</sup>

- 
- 1) 이봉범은 해방 후의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파탄의 모순 속에서도 문화는 ‘풍속적인 차원의 문란’으로 논의될 정도로 소비와 향락적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어떤 때보다도 강렬하게 자각된 해방 후의 정치적 자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끓어오르는 자유의 열망이 과잉자유로 드러나기도 했으며, 이런 가운데 과도한 억압과 비난의 담론들이 넘쳐나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이봉범, 『해방공간의 문화사』, 『상허학보』, 2009. 6, 전후 1950년대 문화적 활황에 대해서는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참조
  - 2) 3·1운동 이후 연애의 문화풍속은 권보드래의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 2003)를 참조
  - 3) 손우성은 3.1운동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일어난 젊은이들의 연애에 대한 관심은 남녀가 만나는 것도, 연애를 거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던 사회에서 젊은이들

반면,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맞이한 정치적 해방으로서의 8·15는 성적 자유와 해방이라는 문제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성적 자유와 관련된 문화가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문화적 상황을 바꿔놓는 것이다. 연애에는 반드시 성적 욕망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되었다. 해방 후 정치적 자유와 더불어 논의된 ‘자유연애’는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숭고한 내면의 울림에 그치지 않고, 성적 자유와 같은 섹슈얼리티의 영역을 통해서 담론화되었던 것이다.

연애, 특히 남녀의 성적 욕망, 애욕이라는 문제는 그다지 익숙한 것은 아니다. 성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sup>4)</sup> 성 지식을 알 수 있는 자료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애로서의 애욕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의 문화적 환경은 급속도로 성문화를 중심으로 재편되

을 고통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사회문화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손우성, 「연애의 투명기」, 『여원』, 1957. 7, 173쪽참조) 1920년대 문학청년의 출현을 미적 청년의 탄생으로 개념화한 소영현은 연애의 고통과 비애가 문학청년의 장식처럼 역할했다고 한다. 소영현, 「미적 청년의 탄생」, 연세대 박사, 2006 참조

- 4) 1956년 11월호 『여원』에 ‘성교육’이 특집기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킨제이 보고서’와 관련된 논점을 제시하면서 한국에서 성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성교육 경험을 서술한 필자들은 대부분 성교육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음을 고백한다. 성을 말해서는 안되는 금기의 영역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50년대 중반의 성교육 경험도 이러한데, 해방 후는 더 찾기 어려웠을 것이며, 실제로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성교육 자료가 개발된 것은 최근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앤소니 기든스의 책을 번역한 배은경과 황정미는 책을 내는 번역자의 말을 빌어 1990년대에 들어 비로소 한국사회에서 성이 공적으로 담론화되기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자료나 인식의 척박함 때문에 그 수준은 극히 저급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한다. 배은경·황정미, 「이 책을 펴내면서: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현대사회의 그림자 혹은 탈출구?」,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참조) 유교적인 정조관념과 보수적인 성인식이 팽배해있었기에 성을 공적으로 담론화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문화풍토가 성교육이나 성을 공론화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어 간다.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소비용품의 시장이 생겨나면서 미제용품이 나 미국문화가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는 주로 군인증심의 성문화였다. 특히 ‘양공주’로 불리는 성매매 여성들이 미국문화를 매개하면서 성문화는 도시문화의 주류로 부상한다. 게다가 급격히 증가한 미국영화 광고 화보들은 선정적인 장면으로 인해 시선을 끄는 도구로 활용되어 영화 화보는 물론이고 만화에 이르기까지 성적 상상을 자극하면서 성을 알리는 중심 매체로 활용된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화 화보나 만화로 성교육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세대를 우려하는 비판의 소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연애와 한몸음으로 따라다니는 성적 욕망, ‘애욕’의 문제는 가장 빈번히 취급되는 문화현상으로 자리잡는다. 이로써 애욕의 문제는 해방 후 한국사회 대중문화의 중심 코드로 부상하면서 근대적 주체 형성에 개입한다. 사랑, 섹슈얼리티는 ‘개인성’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 영역이기 때문이다. 개인 주체의 형성과 연애소설은 해방 후 한국사회의 근대적 성격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다.<sup>5)</sup>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둘러싼 당대적 인기와 관심이 해방과 전후 한국사회의 성격을 논하는데 중요한 평가자료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유부인』의 대중적 인기는 여러 관점에서 논할 수 있지만,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히 사회적 영역으로 진입한 성적 감각, 즉 섹슈얼리티에 관한 대중적 호기심과 내면의 욕망을 자극한 측면을 가장 크게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성적 감각을 자극한 새로운 문화이면서 전사회적으로 퍼져간 대표적 문화는 ‘댄스’이다. 이 댄스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녀의 육체적 접촉을 공공연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

5) 근대문학의 애정서사를 통해, 그저 자유연애가 아니라 사랑의 문법과 근대적 주체의식을 논한 서영채는 감정적 실체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문법으로 역할하는 사랑이 근대적 개인의 형성에 준거가 된다고 한다.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20쪽 참조.

었다. 게다가 댄스는 미국에서 유입된 문화로서 고급한 것으로 위계화되어, 선망의 대상이 된 문화이다.<sup>6)</sup> 댄스는 전사회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기도 했다. 『자유부인』의 대중적 인기는 댄스의 사회적 관심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댄스를 문제시하는 의식에는 당연히 성적 감각, 섹슈얼리티에 대한 상상과 통제의 사회적 매카니즘이 작용하기 마련이고, 『자유부인』은 이를 ‘세대’로서 반영함으로써 195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된다.

그러나 『자유부인』은 대중의 내밀한 욕망을 자극하는 한편, 성적 욕망을 여성의 것이어서 나쁜 것으로 타자화함으로써 여성을 통제하는 지배담론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보수적 면모를 띤다. 정치적 해방에 따른 성적 자유의 문제는 성적 문란이라는 사회윤리, 도덕의 문제로 수렴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성적 자유의 문제는 섹슈얼리티에 한정되는 문제로 제기되기보다는 성적으로 억압된 한 쪽, 즉 정조관념에 얽매어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인 성적인 문제에서도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한 여성의 정치적 주권 문제를 내장하는 정치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성적 문란이나 퇴폐풍조라는 윤리의 문제로 치부하여 개인화하는 『자유부인』은 새로운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기는 커녕 역행하고 통제하는 대중정치의 이데올로기로 역할한다.

반면, 당대의 인기에 비해 별반 논의되지 않았던 김내성의 『실락원의 별』은 정치적 해방에 이어 제기되는 성적 자유의 문제를 새로운 여성의식의 출현과 그에 따른 새로운 남녀관계와 삶의 방식으로 포착한 점에서

6) 이 시기에 댄스홀에 다닌 사람들은 사회지배층이나 지식인 집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댄스홀에 다니는 것을 현대인이 되고 침단을 걷는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따라서 댄스에 대한 통제는 단순한 춤바람에 대한 통제가 아닌, ‘현대화’라는 인식을 재배치하는 것과도 통한다. 즉 이 문화를 통제하기 위해 전통적 윤리나 가치관을 소환하는 일이 필요했고, 실제로 1950년대 중반에 이런 방식으로 문화통제가 이루어진다. 주창윤, 「1950년대 중반 댄스 열풍: 젠더와 전통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53권 2호, 2009, 294-295쪽 참조.

1950년대적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한 작품이다. 특히 연애, 사랑, 애욕의 관념이 새롭게 내용을 구축해가면서 새로운 결혼관/연애관을 형성하고, 그 관계의 주체로서 새로운 인간형을 제안한다는 면에서 1950년대적 변화를 사회문화적으로 펼쳐보여준다.

이 글은 『실락원의 별』의 새로운 측면으로서 주로 결혼관, 연애관, 남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1950년대 삶의 변화에 상응하는 측면을 해명하고자 한다.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1950년대 연애와 애욕의 문제를 논의할 때, 대중문화는 지배담론의 통제전략에 포섭된 측면에서 조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50년대 대중문화는 해방과 전쟁의 자유롭고 재건을 향한 열망에 힘입어 다양한 욕망이 분출되던 양상을 띠며, 『실락원의 별』은 이런 다기한 욕망의 자발적인 한 측면을 담지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런 대중들의 자발적인 욕망에 내재된 ‘자유’가 방종으로 폄하될 것이 아닌 근대화의 욕망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실락원의 별』이 발표된 1956년<sup>7)</sup> 한국사회의 연애와 성은 대중문화적 공론장에서 활발하게 담론화되고 있었다. 『실락원의 별』은 이런 담론적 상황이 반영된 한 정점을 보여준다. 주인공 강석운과 그의 아내 김옥영, 강석운과 애인이 되는 여대생 고영림의 관계는 그 정점의 자리에서 새로운 인간형, 또는 새로운 젠더를 보여준다. 이는 해방 후부터 축적된 새로운 시대의 연애와 그에 따라 증폭되어가는 성 담론의 결과물로 보인다. 『실락원의 별』의 두 개의 관계, 결혼관계로서의 강석운과 김옥영, 연애관계로서의 강석운과 고영림을 중심으로 새로운 젠더상을 논하는 것은 연애와 성 인식이 이 관계를 관통하여 새롭게 정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 『실락원의 별』은 1956년 6월 1일부터 『경향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하여 1957년 2월 16일 김내성이 연재도중 사망하면서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장례를 치르고 1957년 4월 딸이 마지막 부분을 집필하여 연재를 마친 특이한 작품이다. 자세한 서지는 각주 40) 참조.

『실락원의 별』의 젠더 인식은 해방후 정치적 자유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자유연애/연애결혼/성적 자유(자기결정권)와 같은 여성적 주체화한 결실이며, 정답이다. 따라서 이런 논증에 이르기 위해 먼저 해방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연애/성/여성의 삶에 끼쳤던 변화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사랑하는 방법을 계몽하는 사회

정치적 해방과 성적 해방의 연동관계에서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한 섹슈얼리티는 ‘해방’의 시대인 194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또 급속히 담론화 된다. 해방 후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각종 매체에서 이야기의 형식이나 만화와 같은 이미지의 형식으로 성담론이 형성되며, 특히 소설은 서사적 형식을 빌어 성적인 ‘관념’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sup>8)</sup> 해방 후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두 소설가, 정비석과 박계주는 정치적 해방으로 인해 붓물처럼 터져나오는 성적 해방의 기운을 하나의 ‘세대’로서 기민하게 포착하여 소설적 성과를 낸다. 정비석의 전작 장편 『고원』과<sup>9)</sup> 해방 후 창간된 잡지 『민성』에 연재된 박계주의 소설 『지옥의 시』가 이에 해당한다.<sup>10)</sup> 이 두 소설은 식민지 시기에 만주나 중국에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연애담이 중심을 이룬다. 해방 후의 정치적 자유와 연애

8) 소설은 니클라스 루만이나 케이트 밀렛 같은 사회학자들이 성과 사랑을 분석하는 가운데 성 관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케이트 밀렛, 『성 정치학』, 이후, 2009, 니클라스 루만,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역, 『열정으로서의 사랑』, 새물결, 2009 참조

9) 『고원』은 1946년 전작으로 발표된 장편소설이다.

10) 『민성』은 1946년 창간된 잡지로 박계주가 주간을 맡는다. 『지옥의 시』는 1948.8-11월까지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의 자유, 성적 자유의 문제를 반영한 소설로서, 식민지 경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와 해방 후 최대의 대중적 관심사인 자유연애, 그와 한뼘음으로 따라다니는 애욕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집중된 전형적인 해방 후 소설이다. 이는 두 대중작가가 식민지 기억이라는 서사적 테마를 해방 후 자기정체성 구성의 방편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욕망의 발현이기도 하지만,<sup>11)</sup> 그런 외피를 쓰고 애욕의 문제에 정면대응함으로써 대중문화적 감각을 선점하려는 작가적 욕망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박계주의 『지옥의 시』는 맨 처음과 끝부분에 잠깐씩 학병으로 참전하던 때의 조선에서의 상황과 일본 군대에서 탈출하여 해방을 맞고 조선으로 귀환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중국에서 중국여자와 갖은 연애담이다. 그런데 이 연애담은 애욕의 문제를 외국영화나 영화 화보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보기’의 방식이 아닌, ‘읽기’의 방식으로 취급함으로써 가히 연애로서의 ‘애욕’을 계몽한다.<sup>12)</sup>

11) 『고원』은 거의 언급된 적이 없는 작품이며, 최근의 해방기 식민지 기억과 관련된 서사나 귀환서사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혜령, 「‘해방기’ 식민지 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 2008.6 참조) 박계주의 소설이 『순애보』 이외에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탓에 『지옥의 시』 역시 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박계주는 1950년대 대중문화에 영향을 끼친 작가인 동시에 논객이라는 점에서 총체적인 대중문화적 위상에서 논구되어야 할 것이며, 식민지 기억이라는 액자 형식 속에 낭만적인 섹슈얼리티적 연애서사를 펼친다는 점에서 당대 연애서사와 관련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글의 박계주 관련 논의는 ‘대중문화세미나’ 팀을 통해 시사받은 바 크다.

12) 해방 후, 또는 전후 한국사회는 연애담론이 무성하고, 그와 한뼘음으로 성 담론 또한 무성하지만, 담론이나 이야기들이 무성한 것에 비해 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1957년 4월 『여원』에는 “서양 사람들의 풍속 습관이나 사회조직이 모두 연애하기 좋은 환경을 이루어 주”기에 연애의 이야기나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스며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겐 조용히 거닐을 산보로도 많지 않고 기껏해야 다방에 앉아 주위의 못시선을 받으며 어색한 품으로 얘기나 주고받을 뿐이다. 이래서야 첫째 기분도 나지 않는다.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



『지옥의 시』는 연애를 실제 수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들로 감정을 전달하고, 무엇으로 연애를 이루어갈 것인가와 관련된 교과서적인 장면들로 채워져 있다. 애욕을 동반하는 것으로서의 ‘연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시대에 연애를 배워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연애를 알려주는 교과서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sup>13)</sup>

1919년 3·1운동 이후 ‘자유’의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시기의 연애는 연애편지, 혹은 연애의 비극으로 내용이 채워진다. 연애는 청춘의 욕망이지만, 그리하여 개인적 주체화, 즉 개인적 감정에 기반하여 생겨나는 남녀 관계이기에 개인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지만, 발생하는 즉시 극심한 갈등 상황에 처하는 사회적 터부였다. 그리하여 무수한 연애편지는 눈물의 편지이며, 연애의 끝은 죽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14)</sup>

그러나 해방 후의 연애는 눈물의 연애편지나 비극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시기 연애는 남녀가 만나서 같이 놀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욕망을 발산하는 육체적 욕망에 훨씬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sup>15)</sup> 자

---

는 또 괜찮다고 하자. 지방 소도시로 가면 연애의 찬스는 더 줄어들고 환경도 나쁘며 농촌 같은 데서는 대중잡지에서나 꿈 이야기처럼 연애를 「읽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서양 여성들이 공명정대하고 건강하게 키워간 「해피엔드」의 연애를 바라는데 대하여 우리 여성들이 다분히 실련의 상처를 좋아하는 것도 저간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여원벤처』, 『여원』, 1957.4, 269쪽)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한국여성의 연애관이 비극적이고 불건전한 듯이 보이는 것은 연애가 현실이 될 수 없고, 그저 화보처럼 “읽는” 대상일 뿐인 한국사회의 연애 풍도를 통해 해명하고 있다.

- 13) 대중문학의 이런 흐름은 1950년대까지도 이어진다. 김내성의 1954년 연애소설인 『애인』은 철학교수 임학준의 연애 강좌를 듣기 위해 교실을 꼭 메운 학생들의 열기를 묘사하며 작품이 시작된다. 1950년대 작품인 이 소설에서는 공간을 명문 여자대학의 교실로 설정하여, 연애를 계몽하는 시대인 점과 더불어 연애를 여성의 영역으로 젠더화 하는 전략도 추가되어 있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와 전쟁 후 한국사회의 도시문화에서 연애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계몽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대중문학이 가장 주력한 분야로 볼 수 있다.
- 14) 권보드레,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참조.

유나 민주주의는 연애라는 구체적 행동의 양식이나 섹슈얼리티의 내용을 담론화하면서 남녀가 사랑할 수 있는 의식의 터전을 제공한다. 거리마다 나붙은 미국영화 포스터는 연애를 구체화하는 실물로 역할 했지만, 세세한 연애의 행동이나 상황, 언어 등은 한 장의 사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체적인 서술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요컨대, 무작정 끌어안고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몸을 더듬는 것이 연애 일 수는 없는 것이다. 무수한 외국영화 포스터의 키스 장면이<sup>16)</sup> 타락한 퇴폐의 상징으로 폄하되었던 것은, 한 장의 이미지에는 서사가 없고 그리하여 ‘애욕’을 낭만적으로 미화할 성적 판타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감각하는가라는 상세정보가 제시되는 서술을 통해 사랑의 환상을 만들어낼 때, 키스나 포옹을 비롯한 섹슈얼리티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아름다워지고, 정당화된다.

『지옥의 시』는 이런 애욕을 포함한 연애가 어떤 낭만적 판타지를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준 교과서로 역할 한 셈이다.<sup>17)</sup> 이 애욕을 동반하는 연애를 설명하는 것에 주력하기 때문에 장면묘사나 세세한 감각묘사가 주

15) “옛날의 사랑의 이야기는 죽음, 빈민, 분발 그러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사랑의 이야기는 「팬스홀」, 여관방, 요리집이다.” 이건호, 「처녀순결론」, 『여원』, 1955. 11, 30쪽.

16) 실제로 1950년대 대중지 『명랑』 1956년 6월호에는 잡지 첫머리에 「명작영화 키스 씬 특집」이라는 제목으로 30개의 외국영화 키스 씬이 영화배우 이름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영화의 이야기와는 별 상관없이 게재된 이 장면들은 잡지의 시각적 이미지를 위해 고안된 장치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 화보들은 연애로서의 키스를 배우는 시각적 이미지로 활용되었으며, ‘연애’는 이런 방식으로 계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 이 작품에서 연애의 감정을 미화하는 낭만적 판타지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서정시의 인용을 통해서도 한층 강화된다. 작품에서 서구문학의 유명한 시들과 김소월의 서정시 등이 연애의 감정을 낭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되는데, 연애의 감정을 시로 전달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주인공들의 연애를 은유적으로 상상하게 하여 판타지적 요소를 강화한다.

를 이루며, 이 연인들이 무슨 이유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는지는 별로 설명해주는 바가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육체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서로를 감각할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낭만적인 판타지를 구성하면서 육체적인 탐닉에 이를 것인가 만을 서술한다. 즉 이 연인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육체적 욕망으로 전이하기 위해 서사가 만들어진다. 성욕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다는,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만한 감정적 절차를 거치기만 한다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설득에 이르는 ‘매개적 디테일’로 가득 차있다. 소설을 읽다보면 독자들은 어느덧 이 연인들의 육체적 결합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게 된다.<sup>18)</sup> 소설은 이 간단한 과정을 지나긴 인고의 세월이나 이루어야 할 과제로서 제시한다.<sup>19)</sup>

연애와 애욕의 문제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보다 자극적인 대중문화적 코드로 부상하고, 이에 따라 문화풍속의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다. 전쟁을 통해 많은 여성들은 자의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진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고, 적극적인 자아를 훈련한 젊은 여성들이 사랑의 한쪽 주체로 등장함으로써 연애와 애욕의 문제는 ‘아프레겔/전후파’라는 말의 유행과 더불어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다.<sup>20)</sup> 애욕, 즉 섹슈얼리티를 고민하

18) 박계주 소설의 위상은 이 ‘애욕’의 매개성과 디테일적 의미를 미적으로 구체화한 것과 연관된다. 특히 해방 후 1940년대 소설들은 ‘애욕’을 소설적 재제로 삼으면서도 애욕을 인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디테일이 동원된다. 자연스러운 육체적 접촉을 위한 환경으로서 연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있게 되는 상황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연애의 형식을 제안하는 듯하다. 등산과 같이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는 상황 설정이 이에 해당한다.

19) 성욕은 연애의 필수적인 요인이지만, 남성의 영역으로 표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애욕의 낭만화는 성욕을 남성의 것으로 젠더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남성을 사랑하는 여성은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남성에게 정조를 바침으로써 사랑을 승화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애욕을 젠더화하는 것도 이 때이다. 비로소 성 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를 달리하여 논하고자 한다.

지 않는 연애는 진정한 연애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많은 여성들은 진정한 애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에 따라 섹슈얼리티를 자극하거나 폄하하는 다양한 담론들로 성 담론이 무성한 시대가 된다.

6.25 동란 이후의 사태는 이미 지난 날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돌변했다. 「생활태도 도 그러하였고 「윤리」도 「문화」도 「사랑」도 변해 버렸다. 말하자면 6.25동란은 우리의 외부와 내부에 커다란 두가지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이다. 즉 한국의 고유한 문화는 급작히 「아메리카나이즈」 되고 우리들의 마음은 불안과 허무감에 사로잡혔다. 이러한 변천 속에서 「크르즈옌」 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아푸레」의 생태다.

특히 그 「아푸레게에르」의 풍조가 한국의 여성들에게 끼친 힘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우선 한국의 여성들은 8.15의 해방과 6.25의 전란을 통하여 감금된 「방」에서 넓은 「거리」로 해방되었다. 봉건주의의 굳게 닫힌 성문이 열리자 그들은 여성으로서의 자이를 찾게 되었고 또 자기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들은 전화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밭」을 상실했으며 또한 젊음과 꿈과 내일의 희망을 상실하였다. 순진성은 전쟁생활의 참고로 하여 짓밟혔고 우아한 서정의 영도는 슬픈 주검들에 의해서 몰락되

- 
- 20) ‘아프레겔/전후파’는 1950년대이나 현재 1950년대를 연구하는 논의들에서나 쓰는 필자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화되는 말이다. 자기 주장이 강한 당당한 태도의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물질문화, 서구문화의 수용자로서 현대의 성문화를 주도하는 도시여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여대생의 지식인적 취향과 주체적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상식콘사이스아프레게르」, 『여원』, 1957.4, 95쪽 참조) 최근에 여러 논문에서 ‘아프레겔’ 담론이나 표상과 관련된 1950년대 문화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겔(전후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16, 2006,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겔」, 『대중서사연구』 18호, 2007.12, 김현주, 「‘아프레겔’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 『한국문예비평연구』, 2006, 유지영, 「전후 멜로드라마 영화에 재현된 ‘아프레겔’ - 범죄와 고백의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 2008, 김복순, 「아프레겔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어문연구』 37권, 2009.3 참조.

었다.

그러하여 「아푸레」의 여성들은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관능적으로 현실을 향유하려 든다. 그 결과로 외부적인 사치, 유행에의 추종, 육의 개방생활의 구속과 「책임」으로부터의 도피, 이러한 곳에 피로한 정신의 지점을 두고 온갖 「값어치」와 「행위」의 기준을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아푸레」의 여성들은 「칸트」나 「토스토옙스키」보다는, 하나의 「부릇치」 유행하는 의상이 필요했고, 평범한 「아내」나 착한 「어머니」가 되기 보다는, 인기있는 사교계의 「스타」가 되길 원하는 것이다.<sup>21)</sup>

전쟁 후의 사회변화를 성욕만을 위한 일시적인 사랑과 아프레적인 타락으로 꼽는 글이다. 이 타락은 아메리카나이즈, 사랑, 여성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것들을 비판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아메리카나이즈와 연애는 ‘애욕’으로 수렴되면서 ‘여성’의 문제로 젠더화된다. 아메리카나이즈와 연애는 여성과 결합하여 아프레적인 것, 즉 나쁜 것으로 젠더화되는 동시에 위계화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전쟁 후 연애와 애욕의 문제는 전후적 허무주의나 소비주의에 편승하여 전사회적인 문제로 퍼져나감에 따라, 한층 세목화되어 나쁜 여성을 규정하는 목록으로 재정비된 것이다. 가부장적인 가족운리를 중심으로 전후의 사회를 재편하는 지배담론의 통제전략은 연애와 애욕을 해방과 자유의 사회분위기로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여성의 영역으로 젠더화된 연애와 애욕은 직접적인 사회적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연애와 애욕을 통제하는 담론과 표상은 젠더 정치에 포획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되어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연애와 애욕을 젠더화함으로써 타자화하는 담론 정치의 문학적 형상화라 할 정도로 가부장적 지배담론의 재현양상이 두드러진 작품이

21) 이어령, 「6.25 이후: 「사랑상실」에의 항변」, 『여원』, 1957.7, 180쪽.

다.<sup>22)</sup> 정비석은 당시의 부패한 정권이나 정치인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카타르시스를 유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유행처럼 번지는 ‘댄스’ 바람을 여성들의 문화인듯이 비아냥거림으로써 여성을 비하하고 가부장적 여성관으로 여성을 재규정한다. 이는 변화하는 여성들의 문화를 낮설어하며 불안해하는 남성 독자 대중의 욕망을 대변하여 대중적 카타르시스 효과를 발휘한다. 『자유부인』의 대중적 인기는 현실사회를 비판하는 전위적인 태도의 진보성과 가부장적 전통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보수성의 절묘한 접점에서 생긴 성과인 것이다. 한편의 진보성과 한편의 보수성은 한 지점에서 행복하게 결합하여 대중적 욕망을 두 배로 자극하는 문학적 효과를 낳은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연애와 애욕의 문제는 여성들의 타락이라는 문제로 해소됨으로써 젠더 정치의 한 자리를 차지한 셈이 되었다.<sup>23)</sup>

1956년 『경향신문』에 연재되어 인기를 끌었던 김내성의 『실락원의 별』도 이 대중적 관심사인 애욕을 동반하는 연애의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작품이다. 그러나 연애와 애욕을 젠더화하는 지배담론적 경향을 띠지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특히 연애와 결혼과 애욕(섹슈얼리티)

22) 소설 『자유부인』이 국가 재건의 윤리를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가부장적 가족윤리를 내세워 여성을 통제하는 면모에 대해서는 이시은, 「전후 국가재건 윤리와 자유의 문제 -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005. 7 참조

23)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이 진보성과 보수성이 결합하여 최대치의 성과를 낸 경우이다. 그러나 정비석은 이 균형 감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이후 곧바로 발표된 『민주어족』과 『산유화』는 보수적인 민주 의식, 보수적인 여성관으로 삶의 새로움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퇴행적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민주어족』의 정비석식 ‘민주’ 인식이 결국 전통적 윤리의 회복 그 이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중현은 정비석의 해방 후 자유나 민주주의 의식의 수용이 해방 전 식민지시기 과시증적 문화논리의 재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중현, 「자유와 민주, 식민지 윤리감각의 재맥락화 - 정비석 소설을 통해 본 미국 헤게모니 하 한국 문화재편의 젠더 정치학」, 권보드래 외,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참조

의 문제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가장 중요시여기는 인물들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사랑과 결혼,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새로운 인간, 합리적 개인을 제안한 작품으로 볼만하다.

1950년대의 대중문학은 주로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부장적 가족윤리로 여성을 통제하는 지배 담론의 젠더 정치에 대중문화가 포획된다고 평가하게 된다.<sup>24)</sup> 그러나 본격 연애소설로 대중문화적 감수성에 영향을 끼친 김내성의 『실락원의 별』만 하더라도 『자유부인』과는 다른 젠더 표상을 구성하고 있다. 김내성의 연애소설은 정비석의 입지로서 1950년대 대중문학의 젠더 표상을 보수성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기존 연구를 재론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흥미로운 텍스트라 할 것이다.<sup>25)</sup>

24)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은 소설의 인기와 영화의 인기가 워낙 과격적이었던 탓에 1950년대 대중문화의 젠더 표상을 대표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대적 문화환경 속에서 고찰해보면, 소설의 인기와 영화의 인기가 같은 원인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소설은 1950년대 정치권력에 해당하는 관료나 국회의원과 같은 지배계층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렇게 비판되는 범주 안에 ‘자유부인’들도 놓여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유부인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쓰고 참회하는 구조를 지닌다. 그러나 영화는 당대 댄스문화나 양품문화의 시각적 볼거리가 중심이다. 이 문화를 비판하던, 옹호하던 새로이 밀려들어와 대중적 욕망을 자극하는 이 문화가 카메라의 시선에 포착된 중심적 이미지이며, 『자유부인』은 이 이미지를 제공하는 출처인 셈이다. 이 새로운 문화를 보기 위해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각자의 동상이몽적 이해관계를 갖고 영화관으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화 『자유부인』으로 집중되는 대중의 관심과 욕망을 가부장적 젠더 인식으로 획일화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자유부인』에서만도 다양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1950년대 대중적 욕망과 열망은 정비석 작품 내의 질적 차이를 넘어 김내성과 정비석의 차이로도 검토될 다양한 양상임을 염두에 둘 때, 해방 직후와 1960년대를 매개하는 1950년대의 사회문화적 의미가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자유부인』의 관객수용양상에 관해서는 변재란, 「한국영화사에서 여성관객의 영화관람 경험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0 참조.

25) 정비석에 비해 김내성에 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식민시기 대표적 추리소설 『마인』을 중심으로 한 추리소설 작가로서의 면모가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으며, 2009년 대중서사학회에서 마련한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통해 전

### 3. 연애결혼, 인격적 관계로서 ‘부부’, 여성적 판타지

“제가 그이와 결혼한 것은 단지 밥이나 벌어다 주는 경제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식을 낳아서 모성애를 발휘하고 그 모성에 속에서 행복을 구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남편의 애정이 소중해서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sup>26)</sup>

『실락원의 별』의 주인공인 소설가 강석운의 부인 김옥영이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발언이다. 이 여성은 남편을 내조하고 헌신적인 모성애를 발휘하며 가정을 돌보는 전형적인 현모양처형 여성이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이 여성은 혼신을 다해 가정을 알뜰하게 가꾸고 관리하는 자기 삶의 근거가 남편의 사랑임을 밝히고 있다. 이 여성의 정체성은 바로 이 ‘사랑’에 있는 것이다. 남편과의 사랑 때문에 한 가정의 주체이면서 한 사회의 주체라는 자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여성이다. 이 여성에게 사랑은 자기를 확인하는 유일한 것인 셈이다. 따라서 그것을 잃었을 때, 이 여성은 자연스럽게 자기 상실을 선언한다.

“미련하고 못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아무리 기를 써도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가 없어요 저로 하여금 마음을 단단히 가지도록 한 원인이 남편의 애정에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오늘, 무엇을 가지고 마음의 기둥을 삼으라는 말씀이 신자…… 원인 없는 행동을 저는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열녀도 되고 싶지 않고 현모양처도 되고 싶지 않아요”(321)

---

체적인 작품세계가 조명되기 시작했다.(『대중서사연구』, 2009.6) 장편소설 전체에 대한 연구는 이영미의 「추리와 연애, 과학과 윤리 - 장편소설로 본 김내성의 작품세계」를 참조할 것.

26) 김내성, 『실락원의 별』, 민중서관, 1959, 322쪽. 이후는 쪽수만 표기.



이 자기상실은 역설적으로 자기를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 상실이다. 옥영은 원인없는 행동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상실을 선언하는 것이며, 열녀나 현모양처는 과정의 결과일 뿐이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정체성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자신에게도 세상 여자들이 갖고있는 정도의 모성애는 있지만 “세상의 아내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이 따라할 수는 없다고 당당히 말한다. 따라서 “남편의 애정을 잃었다는 데서 오는 허무와 비굴의 감정보다도 가정을 지키고 어떤 생명들을 보호 양육하는 문화사적(文化的)인 사명과 숭고한 모성애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극히 높이 평가”해야 한다며 모성애를 지니고 가정을 지키는 이들이 바로 “인류의사의 실천자들”이며, “인생의 수단인 소아적인 결혼의식을 지양하고 그의 목적인 대아적인 사명을 다해 온”(328) 것이라고 며느리를 설득하는 시아버지의 말에도 이랑곳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냥 관습으로서의 결혼이 아니고, 애정결혼인 ‘나’는 다르다고 항의한다.

“아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부터 애정 없는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략)...이러한 애정 결혼에서 과연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생각하시고 애정을 다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남편의 애정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 애정의 결과로서 오는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하는 따위는 결코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러한 결과로서 오는 결혼, 출산, 가정이라는 것이 남편의 애정을 독점하는 좋은 유대(紐帶)가 되고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구태여 거부하지 않고 허용했을 뿐이었어요.”(324)

출산이나 가정이 여성의 결혼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라는 결혼관은 현모양처나 모성, 내조 등과 같은 젠더 역할을 떠받치는 근본 이념이다. 그

러나 인용문에 제시된 옥영의 말은 한 남성의 애정을 받아들이는 여성이 그 과정에서 얻게되는 것으로서 결혼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애정을 잘 지켜나가는 수단으로서 출산이나 가정이 중요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기존의 결혼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결혼관이며,<sup>27)</sup> 결혼에 임하는 새로운 여성의 탄생이라 할만한 급진적 변화이다. 김옥영은 이전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혼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고 있으며,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말하며 “세상에는 도덕이라는 것이 있”다며 나무라는 시부모님들과 대적하며 자기를 주장하는 새로운 인간, 신인류인 것이다.

그런데 김옥영이라는 1950년대 여성이 ‘애정’의 결실로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기에 애정이 없는 결혼은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신인류’로 정체화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연애결혼에 이르게 된 상대 파트너인 남편 강석운의 사랑관, 결혼관 때문이다.

결혼이란 상대편의 애정을 독점하면서 해로 동혈을 약속하는 인생의 행사였다.(11)

남편의 지론인 가정제일주의에는 결혼 당시부터 옥영은 전적으로 찬의를 표했을 뿐 아니라, 옥영 자신 그러한 가정 속에서라면, 그리고 그러한 남편 밑에서라면 심산 유곡의 단간 두옥에서라도 일생을 뉘우침없이 살 것 같았기에 그토록

27) 식민지 시기까지도 가족의 주체는 ‘부부’가 아니었다. 가족은 자녀양육과 가문의 계승을 중심으로 인식되었으며, 여성의 역할은 ‘모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생겨나기 시작한 ‘주부’의 정체성도 아내보다는 어머니의 역할로 정의되었다.(김해경, 『식민지 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79-83쪽 참조) 근대초기의 가족론의 중심을 이룬 ‘조혼타파’논의는 기본적으로 부부중심의 결혼관 정립에 기여하지만, 잡지매체의 여성 인권과 관련된 논의의 한 흐름일 뿐이지 가족의 구조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줄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전미경, 『근대 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소명, 2005, 65-68쪽 참조

빗발처럼 쏟아져 오는 구혼자들의 애소의 염서(艷書)를 모조리 물리치고 강석운과의 결혼을 단행했었던 것이다. 신뢰감을 넘어선 존경의 엄까지를 옥영은 이 남편에게 대해서 품고 있었다.(14)

강석운은 결혼을 상대방의 애정을 독점하면서 늙어가는 “인생의 행사”라 여기고, 가정을 낙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옥영에게 신뢰를 주었다. 이 ‘부부’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연애결혼한 사이이다.

‘연애’가 리얼리티로 실감되지 않고 하나의 ‘읽을 거리’로 통용되던<sup>28)</sup> 1950년대에 연애를 통해 결혼에 이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김옥영과 강석운의 관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여대생 출신의 지식인 여성들이나 겨우 꿈꿀 수 있는 일이었다.<sup>29)</sup> 게다가 결혼을 상대방을 향한 독점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 남녀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은 더욱 흔한 일이 아니었다.

강석운의 이런 결혼관은 작품 초반에 추리소설 작가의 면모가 한껏 발휘된 아내 옥영을 미행하는 장면을 거쳐 내면화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집에 있어야 할 부인이 서울 도심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강석운은 추리소설처럼 박진감 넘치는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부

28) 각주 9) 참고

29) 1950년대의 여대생은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를 만들어내는 집단이었다. 그 중에서도 연애 풍속과 패션풍속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주인공들이다. 여대생과의 연애는 모든 남성들이 꿈꾸는 것이었고, 여대생은 구체적인 여성의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서 상상되는 존재였다. 1950년대 『여원』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창간된 잡지였으며, 창간 초기의 기사는 대부분 여대생을 둘러싸고 새로이 생겨나는 삶의 문제나 문화적 현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여대생은 연애의 풍속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연애의 끝으로서 결혼에 이룸으로써 결혼의 형식,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까지도 바꿔낸다. 나아가 부부의 윤리, 가족의 윤리가 변화하는 데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삶의 매개체로 역할한다. 이선미, 「1950년대 젠더 인식의 보수화 과정과 ‘월순아지매’ - 『여원』 만화의 여성캐릭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009.6 참조.

인을 미행하지만, 결국 자신의 오해임이 밝혀짐으로써 안도한다. 그리고 곧바로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내’라는 여성들의 입장을 생각한다.

강석운은 아내를 오해하고서 뒤따라갔던 짧은 순간의 경험을 “현실적 가정을 파괴함이 없이 그 빠져리고 가슴 아픈 감정의 풍경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나 작가적으로나 하나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남성과 다른 약자로서의 여성의 고통을 통찰한다.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처벌하기 위해 왕자의 권위로서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그런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당당할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처벌할 수 없을뿐더러, 그러기 위해서 권위를 갖고서 가정을 파괴할 권리는 더구나 갖고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젠더 불평등의 사회구조를 분석해낸다. “사회는 쌍벌죄의 원고인 아내들에게 동정을 보내기 전에 먼저 비웃음으로 대”하기 때문이라며 당대 쟁점 사안인 ‘쌍벌죄’까지 언급한다. 한 남성으로서 강석운은 아내를 오해한 작은 경험을 통해 아내들이 처한 사회적 위상을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인정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강석운은 “아내들의 입장이 약한 줄을 비로소 느끼는 강석운은 물론 아니었다. 다만 오늘에 와서야 느낀 강석운의 그 비참한 감정 체험을 살림으로써 약자로서의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좋은 약이 되기를”(50-51) 절실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는다.

이렇게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는 강석운은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관계로 부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부부를 인식한다.

… (략) … 이른바 부부라는 사회적인 위치를 떠나서 김옥영 대 강석운이라는 인격과 인격 앞에서 느끼는 범죄의식이 좀 더 강하게 왔다. 남편이 아내를 모욕했다는 것이 아니고 강석운이가 김옥영을 모욕했다는 데서 출발한 양심의 가책

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내 김옥영의 사고 방법이기도 하였다. 떠들지도 않고 발악도 않고 조용한 눈물 속에서 원망의 시선만을 보내온 옥영의 심정을 석운은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옥영은 지금 남편에게 침범당한 아내의 위치보다도 더 절실히 강석운이라는 인간에게서 훼손당한 자기의 인격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석운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석운과 옥영의 부부생활은 언제든지 내외라는 사회적 위치로써 형식적으로 영위되어 오기보다도 먼저 애정을 기초로한 인격의 존중으로써 영위되어 왔었기 때문이었다.(296)

강석운의 생각이다. 강석운과 김옥영은 남편과 아내라는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서 부부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를 배반했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위반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관계의 기초는 애정이며, 이들은 이렇게 맺어진 관계를 부부라고 명명한다. 이들의 부부관계는 남편과 아내라는 위계적 젠더 역할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개인적인 신뢰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개별적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서로 간의 애정과 신뢰 만이 이 관계를 버티는 힘이다. 가정의 윤리나 관습, 또는 모성애와 같은 윤리도 이 관계를 유지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이 ‘부부’ 관계는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관계이며, 수평적 질서로 유지되는 새로운 남녀관계이다. 이 관계의 주체들은 서로 대쌍으로서 새로운 인간형/신인류가 되는 것이다.

1950년대는 8·15와 6·25를 겪으면서 자유와 해방이라는 상황이 정치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개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그 과정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은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진출하여 직장여성이 되기도 하고, 연애결혼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결혼이나 가족제도는 8·15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탓에 심한 문화적 격차와 갈등을 겪는다.

변화한 여성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습득한 여성들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 이 여성들은 주로 여대생이거나 여대생 출신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다. 결혼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이 여성들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간다.<sup>30)</sup>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 혼자 실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즉 결혼을 인생의 한 절차처럼 거쳐야 하는 1950년대 사회에서 여성의 주체화는 관계 속에서 같이 실현할 수 있는 남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결국 새로운 삶의 변화 속에서 의식의 변화를 받아들인 남성이 있어야 이 여성들의 새로움은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새로운 삶의 변화를 문화적으로 빠르게 습득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만큼 상대편 남성들도 그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한 여성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술집 여자를 찾는 남편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sup>31)</sup> 1950년대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

30) 『여원』은 ‘여자대학생의 소원 세가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해서 여대생을 탐구하는 기사를 마련한다. 이 설문조사에서 소원 1위와 2위는 코믹하게도 ‘남북통일’이었다. 전후의 전쟁감각과 반공이데올로기가 전면화된 사회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 순위로 가장 많은 여대생이 원하는 소원은 “이상적인 남성, 혹은 좋은 배우자”(132쪽)였다. 이 여대생들은 ‘호흡이 잘맞고’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남성을 배우자로 원하고 있으며, 스스로 ‘그것이 실현 될지요?’라는 의문을 표현함으로써 그저 소원일 뿐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많은 젊은 고학력의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적 관계로서 결혼생활을 하고자 하지만, 그런 결혼이 가능하리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미 이 현실관에는 여성들의 변화와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사회구조, 사회의식, 혹은 문화풍토가 전제되어 있다.

31) 이 시기(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대중문화의 정점에 있는 영화는 주로 바람난 남편을 응징하고 감시하는 내용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경향이 대세였다.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소도, 2004 참조

받아들이는 새로운 여성들이 출현하였지만,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성들은 흔하지 않았다. 즉 ‘부부’는 연애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새로운 젠더 질서, 새로운 부부윤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8·15와 6·25의 변화 앞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격차는 상당히 벌어져있었던 시대이다.<sup>32)</sup>

이런 시대에 소설 『실락원의 별』의 강석운은 결혼을 독점적 사랑이라 여기며, 부부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닌,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인식하는 남성이다. 여성도 인권의 주체로 법적 권리를 갖게되고, 남성과 같은 대학교육을 받고 사회활동을 하며, 낭만적 사랑에서 출발하여 결혼에 이르러,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부부를 희망할 수 있게 된 사회변화를 반영하듯,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남성으로서 창조된 인물이다. 아담의 상대역을 위해 이브가 창조되었듯이, 새로운 여성들, 즉 자유연애를 통해 결혼에 이르고자 하는 여성의 희망에 상응하여 창조된 신화적 인물인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장하고 그 삶의 윤리를 내면화한 현실의 남성들에게서 쉽게 실현되기 어려운 남성상이지만, 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남성인물인 것이다. 이 인물이 존재함으로써 여성들의 삶의 변화나 원하는 삶이 구체성을 얻을 수 있고, 이 인물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남성문화가 무엇인지 명확해진다. 강석운은 돈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노리개로 삼는 고영해의 악성을 폭로하는 매개물이면서,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적 성공을 꿈꾸는 ‘악녀’로 표상된 이애리의 진심을 매개하는 인물이기도 한 것이다. 해방후, 또는 전후의 삶의 변화를 젠더적으로 표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32) 『여원』은 결혼적령기의 여성들만으로, 또 남성들만으로 「우리는 이런 신랑감을 원한다」, 「우리는 이런 신부감을 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좌담회를 연다. 이 좌담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상대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특집 좌담회>, 『여원』, 1956.2 참조.

상상적 인물, 즉 ‘여성적 판타지’가 반영된 남성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33)</sup> 1950년대적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김옥영의 새로움보다 강석운의 새로움이 더 두드러지는 것은 이런 판타지적 요인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현대적인 삶의 변화로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한다. ‘사랑’의 감정적 속성과 애욕의 문제이다. 사랑의 감정적 속성이라는 문제는 제도로서의 결혼이 보장하는 독점적 사랑에 대한 질문, 즉 제도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온전히 보존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한 것이며, 애욕의 문제는 결혼제도 바깥의 애욕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실락원의 별』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고영림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구체화시킴으로써 ‘근대성’을 구현하는 인물이며, 근대 이후의 문제까지도 체현하는 전위적인 면모를 지닌다.

#### 4. 결혼을 상상하지 않는 연애, 결혼 바깥의 섹슈얼리티, 근대 이후의 여성

고영림은 영문과 졸업반인 여대생이다. “튀어나 퍼머가 조출”한 “흰 나일론의 하이넥 블라우스, 검은 곤색 사지의 투피스”를 즐겨입으며,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 다니는 “얼핏 보면 아쁘레 같기도 했지만 그렇지도 않”(22)은 여대생이다.

전차의 차장이 짐이 많아서 쉽게 내리지 못하는 손님에게 함부로 구는

33) 대중문화가 본격화되었다고 보는 1970년대 문학의 여성인물들은 곧잘 ‘남성적 판타지’로 분류된다. 특히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린 『별들의 고향』이나 『겨울 여자』의 여주인공인 경아와 이화는 남성들을 위무하는 대표적인 여성으로 담론화된다. 이는 현실에서 실제 이런 여성들이 존재하는가와 상관없이 변화한 남성들의 삶의 문제를 상상적으로 재현한 미학적 형상이라는 점에서 판타지로 분류되는 것이다. 강석운 역시 경아나 이화처럼 1950년대의 급격히 변화된 여성의 삶과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는 남성과의 불협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판타지가 반영된 젠더 표상이라 할 수 있다.



것을 못참아 따귀를 갈기는 용감한 여성이며, 많은 사람에게 놀림을 당하면서도 집의 식모를 언니라고 부르며 하대하지 않고, 바람난 오빠에게 무시당하며 병석에 누워있는 올케 한혜련을 친언니 대하듯 살뜰이 보살피며 오빠의 부도덕에 항거해야 한다고 올케 편에서 오빠를 비난하는, 정 많고, 윤리적이며,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우연히 전차에서 차장의 따귀를 갈기는 것을 목격하면서 고영림을 처음 대한 강석운은 누구냐는 질문에 “빠스 간에서부터 이 순간까지 선생님이 보아오신 제가 바로 저니까요”(28)라는 대답에 충격을 받으며 “투명한 사고방법” 지니고 있다고 여기면서 “작가적인 호기심과 인간적인 흥미를 동시에” 느낀다. 고영림은 강석운과 같은 전차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등장하는데, 이 첫장면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여성임을 풍기며 정체화되는 인물인 것이다.

고영림은 “이름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하는, 그런 종류의 편의상의 명칭이나 세속적인 환경”(28)에 기대지 않고 드러나는 바로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체화되기를 희망하는 여성이며,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적 여성이다. 올케인 한혜련은 이런 고영림을 자신의 전전파(戰前派)적 성격과 대조되는 전후파(戰後派)적 성격이라고 지칭하면서 남편의 외도를 부정하지 못하고 굴종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고영림을 구별짓는다. 고영림의 주체적이고 합리적 태도는 새로운 것, 현대적인 것으로 담론화되는 전후파적인 면모라 할 수 있으며, 화장기 없이 검은 곤색 양복만을 고집하는 외모 상으로는 아프레겔과 다른 여성으로서, 당대의 여성을 구별짓는 방법에 잘 적용되지 않는 혼종적 여성이다.

고영림은 어릴적부터 강석운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를 열렬히 사랑해온 여성이다. 주체적인 만큼 사랑과 결혼의 주체성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가장 가까운 남성인 아버지와 오빠의 여성편력을 보고 자리면서 남성중심적 결혼생활을 혐오하고, 남성까지도 혐오하는 여성이 되었다. 따라서 아

버지와 오빠를 혐오하고 부정하는 만큼, 그들과 짝이 되어 노예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어머니와 올케언니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애정을 느끼는 남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결혼관을 갖게 된 여성이다.

고영림은 가장 급진적으로 주체화된 여성이지만, 이 여성과 짝이 되어 결혼생활을 이룰 만큼 여성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남성을 만나지 못하면서 강석운을 연모하게 된다. 그리고 부인이 있는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강석운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인다.

아프레겔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의욕에 찬 여대생 고영림과 유부남 강석운의 사랑은 그 형식으로만 보면, 1950년대 많은 대중소설의 소재였던 ‘여대생과 유부남의 불륜’이라는 테마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 사랑의 주체들은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다른 소설의 불륜과는 전혀 다르게 대응한다. 그럼으로써 사랑을 근대적으로, 혹은 탈근대적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유형의 남녀로 거듭난다.<sup>34)</sup>

강석운은 “영림의 옆에 있을 때는 옥영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옥영의 옆에 있을 때는 영림의 생각이 흐려”진다고 고백하면서 “그 어느 것이나 다 같이 인간 강상석운에게는 추호도 거짓 없는 진실하고도 절실한 애정의 자세”라고 여긴다. 그리하여 석운의 변심을 목도하며 비통해하는 아내 앞에서 “이러한 욕망이 인간에게 허용될 수가 있다면, 신의 노여움을 살 말이지만 옥영과 영림을 나는 다 함께 갖고 싶을 뿐”(295)이라고 간절히 고백한다.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옥영은 대꾸도 없이 조용히 석운의 곁을

34) 근대적인가, 탈근대적인가는 근대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주의자인 기든스는 탈근대적인 면모를 ‘성찰적 근대성’으로 명명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관점에 따라 고영림의 면모는 근대를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탈근대적이기도 하고, 근대의 완성단계로서 더 근대적인 것이기도 하다.

떠나 자기 방으로 사라진다.

이 대목에서 강석운의 사랑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관습이나 윤리에 항거하는 ‘인간’적인 것으로서 의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랑은 하나여야 한다는, 그리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는 송고의 신화를 여지없이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강석운의 진심이다.<sup>35)</sup> 고영림의 고백을 듣고 동요하는 강석운은 간지러운 사랑의 속삭임과 밀회를 즐기지만, 곧바로 부인 김옥영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고통을 진심으로 가슴아파하며 참회한다. 그러나 또 곧 영림에게로 가면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혼란을 겪으며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러운 사랑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강석운의 이 마음은 오히려 사랑의 속성을 간파하는 새로운 인식일 수 있다.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고, 감정은 시간의 힘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sup>36)</sup> 강석운의 이 변덕스러운 사랑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영림 역시 강석운의 사랑을 약속이나 결혼으로 제도화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의 감정 변화에 솔직하게 반응한다. 고영림은 강석운에게 적극적인 사랑 고백을 하고, “연애의 결말은 애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하며 가까워지기를 두려워하는 강석운에게 “제 역사는 제가 만들 테니까 선생님의 역사는 선생님이 만들”(238)라고 말하며, 과감히 결혼으로 수렴되지 않는 연애와 섹슈얼리티를 인정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욕에 따라 강석운과 사랑의 도피행을 시도하고, 두 달여 동거생활을 이어간다. 고영림은 사회가 개인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관습이나

35) 사랑은 여럿일 수 있다는 논리는 이전까지 ‘난봉꾼’을 표상하는 설정이었다. 그러나 강석운은 성실한 남자로서 진심으로 이런 감정을 토론한다는 점에서 ‘다른’ 남성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36) 사랑의 속성이나 사회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니클라스 루만, 정성훈·권기돈·조형준 역, 『열정으로서의 사랑』, 새물결, 2009 참조.

법, 문화풍속에 의해 개인의 행, 불행이 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행 불행은 주관적인 문제니까 걱정 너무 마시고 선생님이 좋을실 대로 사랑 해”(283)달라고 강석운의 주체적 사랑을 요구할 뿐이다. 사랑은 개인적인 영역이며, 관계의 주체에 의해 행, 불행이 결정되는 주관적인 것임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석운과의 헤어짐이나, 헤어지고 나서 돌아와 자기 과거를 정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전통적 관습이나 제도, 또는 사람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칸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의 소식이 궁금해진 석운의 일이 아니었다./ 「칸나는 언제나 칸나의 세상을 걸어가는 거야…… / 문제는 석운보다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나는……」/ 영림은 송림 그늘에서 발뚱 일어서 천천히 걷기로 했다. 걸으며 자기를 좀 더 정리해보고 칸나를 이처럼 좀먹어 들어가는 요소들을 뽑아 버리자./ 「들창을 넘어서까지 선생님의 곁으로 달려오든 정열이…… 지금은? / 지금은 석운의 곁에서 한 번 떨어져서 혼자서 산보라도 해보고 싶을 만큼 정열에 틈서리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석운의 호흡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숨 가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영림의 영혼이 이렇게 수목과 하늘을 찾으며 울먹울먹하는 것이 아닌가.(381)

고영림은 유부남 강석운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두 달여의 동거생활을 하면서도 정조를 잃었다는 상실감이나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다만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면서 즐길 뿐이다. 대구와 경주를 진전하는 이 연인들의 사랑행이 다소 향락적으로 묘사되는 것도 자기 욕망에 충실한 면모 때문이다. 그러나 마냥 절대적이었던 사랑의 마음이 서서히 엷어지고 틈서리가 생겨난 것을 발견하면서 자기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더할수록 자기의 정열이 “과리를 날리는 구멍가게들처럼 쓸쓸해져”(385) 간다고 느끼면서 “괴로운 환멸의 때

가 오기 전에 칸나는 즐거운 추억을 안고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며 강석운을 두고 떠난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강석운과는 떨어져 왔지만 강석운이라는 인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칸나의 인생은 소중한 푸르쓰다”(389)<sup>37)</sup>라고 자기의 사랑을 성장의 계기로 정리한다.

낭만적 사랑을 계기로 독점적 사랑을 약속하는 일부일처의 결혼으로 끝이 나는 사랑은 산업화를 받혀주는 근대사회의 사랑방식이다.<sup>38)</sup> 처첩제도가 혼인제도, 가족제도의 한 형식으로서 용인되던 조선시대를 지나 여성의 인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었던 해방 후 사회에서 여성들은 이 낭만적 사랑과 근대적 결혼제도를 여성적 주체화의 유일한 출구로서 인식했다. 순결과 정조의 논리를 금과옥조처럼 내면화하고서 결혼할 남자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정조를 목숨처럼 여기는 논리도 이 낭만적 사랑과 일부일처 결혼제도의 약속이 경이로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영립은 주체화를 지향하는 가장 급진적인 여성들조차도 사랑의 결말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제도를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사랑한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지 않는데도 섹슈얼리티에 개방적이다. 사랑의 가변성을 인정하면서 욕망을 따라서 사랑을 즐기고, 사랑이 정신적이면서 육체적인 감각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섹슈얼리티의 금기를 벗어나기도 한다. 사랑의 주체가 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대적이지만, 낭만적 사랑의 신화와 몸의 신화에서 자유로움으로써 탈근대적 연애관/결혼관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특히 결혼과 같은 ‘제도’로 제한되지 않는 사랑, 결혼제도 바깥의 섹슈얼리티를 자기정체성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근대를 넘어서 근대 이후를 전유하는 젠더

37) ‘칸나’는 고영립의 예명이다. 강석운을 만나기 전부터 강석운을 존경하였고 『칸나의 의욕』이라는 소설을 써서 보낸 바 있다.

38) 사랑과 가족제도, 연애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참조.

표상이라 할만하다. 김옥영의 결혼이 1950년대의 젠더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결혼관계이듯이, 고영림의 연애 역시 사회윤리로 승화되는 정조관념이나 일부일처의 관념에 반(反)하는 ‘연애관’을 제안한다는 면에서 새로운 연애라 할 것이다. ‘여성’들의 이 변화는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징후라는 점에서 대중의 근대화를 향한 열망의 양상으로 평가하기에 손색이 없는 젠더상이다.

## 5. 결론

1957년, 7월호 『여원』에 실린 글에서 조연현은 구체적인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실락원의 별』을 예로 들면서 세대와 여성의 관계를 조망한다.<sup>39)</sup> 조연현은 고영림의 사랑 방식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처녀의 사고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함으로써 “연애 문제에 있어서 그 윤리적 기초가 전적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실낙원의 별』이 『경향신문』에 1956년 6월 1일에 연재가 시작되어 1957년 2월 16일 연재를 중단했으니,<sup>40)</sup> 이 글은 연재가 끝나고 곧바로 쓰여진 셈이다. 이 글에서 당대 저널을 중심으로 이름난 평론가였던 조연현은 ‘영림’을

39) 조연현, 「해방 후: 윤리적 기초의 戀貌」, 『여원』, 1957.7, 178쪽 참조.

40) 김내성은 이 연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연재 도중 갑자기 뇌일혈로 사망한다. 1957년 2월 16일 253회를 끝으로 연재가 중단된다. 이후 친한 동료 작가들의 도움을 받아 그의 딸인 김문혜가 1957년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추가로 연재하여 연재를 마친다. 김동윤은 『신문소설의 재조명』(예림기획, 2001)에서 연재중단과 재연재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2월 25일로 연재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연재는 2월 17일에 중단되며, 이후 2월 18일자에 김내성의 발병으로 연재를 중단하였고, 2월 20일부터 중견작가의 단편소설 릴레이 첫 번째로 임옥인의 소설을 연재한다고 공지한다. 그리고 2월 20일자에 19일 아침에 김내성이 별세하였다는 기사가 실린다.

아프레겔로 비난하지 않고, 새로운 윤리적 기초를 지닌 연애의 주체로 평가한다. 자아가 강한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방종이나 퇴폐적인 성문화로 비판부터 해놓고 보는 당대의 여론에 비하면, 상당히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에 해당한다. 『실락원의 별』은 발표되던 당시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에 의해서도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여성 상으로서 호의적으로 해석된 듯하다.

고영림은 유부남과의 사랑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확신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아프레겔’이나 신파적 여주인공과 다르다. 또 사랑을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조화로 보는 점, 변덕스럽고 이중적일 수도 있는 사랑의 감정적 속성을 인정한다는 점,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솔직하고 개방적이라는 점, 남성과의 이별을 철저히 자신의 감정의 흐름을 통해 예감한다는 점 등에서도 다른 연애소설의 여주인공과 확연히 구별된다. 물론, 이렇게 구별되는 점은 상대편 남성인 강석운의 개성적 면모와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

고영림과 강석운과 김옥영이 변주해내는 사랑은 ‘자유’의 시대에 인간의 주체성이란 어떤 방식으로 사유되고 획득될 수 있는지, 이전의 관습과 제도가 얼마나 주체성을 억압/통제하는 것이었는가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게 하는 매개물이다. 이것이 『실락원의 별』의 인물들을 1950년대 대중의 자발적인 욕망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젠더 표상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이다. 자유가 지배담론의 전략에 포획되어 타락/방종/퇴폐로 전유되어가는 시대에, 담론정치의 변방에서 자발적으로 주체화되어가는 삶의 국면이 이 한편의 소설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그리고 이들의 연애가 남녀관계의 위계구조가 아닌,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통해 실현된 것이라면, 여기서 새로운 젠더 질서와 가족윤리를 상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950년대는 정치적 자유가 성적 자유로 연동되면서 새로운 주체를 구성하는 대중의 욕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었던 시대이다.<sup>41)</sup> 성적

자유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면과 연관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변화들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가장 주체적이고자 열망했던 두 여성, 김옥영과 고영립, 그리고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고자 했던 강석운은 남녀가 위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관계로서 새로운 결혼, 새로운 연애를 표상하는 열망과 실천을 보여준다. 이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제도/관습/문화의 여성 억압적인, 혹은 젠더 불균형의 관계를 평등한 인격적 관계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시도로 드러난다. 그저 사적인 감정에 충실하고 관계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던 이 남녀들의 관계는, 그것 자체로 새로움의 한 극단,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남녀관계를 상상하게 한다는 면에서 전위적일 수 있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당대의 보수성과 부조리를 폭로한 현실비판적이기도 하다. 『실락원의 별』은 당대의 상식선에서 최첨단의 전위적 면모를 지니지만, 법적 제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해방’기의 삶의 상황 속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면모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다원적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당대의 복합적 사회성격을 이 한편의 소설이 극명하게 반영해 낸 측면이다. 특히 이 복잡성은 여성이 처한 극단적인 삶의 상황의 공존과 관련되어 있기에 젠더 구조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는 『실락원의 별』이 남성 주체의 변화를 담고 있으면서도 여성적 삶의 문제로 특화되는 이유이다.

- 
- 41) 해방 후, 또는 전쟁 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요구와 자유에 대한 열망은 성적 풍속이나 젠더 인식에 직접 영향을 끼쳤으며, 이런 경향이 대중적 자발성으로 자유롭게 분출되어 여성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대중문화의 연애/성 풍속의 개방적 자율적 면모는 1958년을 기점으로 전환되는 듯하다. 이런 대중문화적 경향이 어떤 방식으로든 1960년대 성 담론까지 이어지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퇴폐나 향락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지배담론을 매개로 통제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1958년 경이라고 보인다. 특히 통제의 명분이 ‘여성’의 소비 향락주의로 담론화되면서 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대중문화는 더욱 위축되고 가부장적 담론지형으로 수렴된다. 이는 여성문화를 호명하는 담론 상에서 가장 눈에 띄게 이루어진다. 이선미 『젊은 『여원』, 여성상의 비등점, 권보드래 외,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참조



1950년대 대중문화는 다양한 지식을 수용/갈망하는 세계적 상상력과 서구사회의 물질문화가 유입되는 가운데 근대화의 경향들이 혼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생성/퇴행시키는 역동성을 지닌다. 젠더 표상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양상의 욕망을 포괄하는 상상적 시도들이 존재했다. 김내성의 『실락원의 별』은 이런 복합적 문화충돌/융합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안된 젠더 표상을 읽어낼 수 있는 대중문화 텍스트로 평가할 수 있으며, 1950년대의 문화적 지평, 혹은 젠더 인식의 지평을 한단계 진작시킬 수 있는 작품인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경향신문』, 『여원』, 『명랑』  
김내성, 『실락원의 별』, 민중서관, 1957.  
박계주, 『지옥의 시』, 박영사, 1959.  
정비석, 『고원』, 백민문화사, 1946  
정비석, 『자유부인』, 정음사, 1954.

### 2. 논문과 단행본

-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197-308.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김복순, 「아프레겔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어문연구』 37권, 2009.3, 285-308.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겔(전후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16, 2006, 177-209.  
김해경, 『식민지 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김현주, 「‘아프레겔’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 『한국문예비평연구』, 2006, 315-335.  
김현주, 「김내성 후기소설 『애인』에 나타난 욕망과 윤리」, 대중서사연구 21호, 2009.6, 203-236.  
니클라스 루만, 정성훈·권기돈 조형준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 2009.  
배은경·황정미, 「이 책을 펴내면서: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 현대사회의 그림자 혹은 탈출구?」,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6-17.  
변재란, 「한국영화사에서 여성관객의 영화관람 경험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0.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소영현, 「미적 청년의 탄생」, 연세대 박사, 2006.

-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 유지영, 「전후 멜로드라마 영화에 재현된 ‘아프레걸’ - 범죄와 고백의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 2008.
- 이봉범, 「해방공간의 문화사」, 『상허학보』, 2009.6, 13-54.
- 이선미, 「1950년대 젠더 인식의 보수화 과정과 ‘왈순아지매’ - 『여원』 만화의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009.6, 161-201.
- 이선미, 「젊은 『여원』, 여성상의 비등점,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 출판부, 2009, 255-286.
- 이시은, 「전후 국가재건 윤리와 자유의 문제 -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005.7, 139-166.
- 이영미, 「추리와 연애, 과학과 윤리 - 장편소설로 본 김내성의 작품세계」, 『대중서사연구』, 2009.6, 7-50.
-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소도, 2004.
- 이혜령, 「‘해방기’ 식민기억의 한 양상과 젠더」, 『여성문학연구』, 2008.6, 233-266.
- 전미경, 『근대 계몽기 가족론과 국민 생산 프로젝트』, 소명, 2005.
- 정종현, 「자유와 민주, 식민지 윤리감각의 재맥락화 - 정비석 소설을 통해 본 미국 헤게모니 하 한국 문화재편의 젠더정치학」,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105-150.
- 주창윤, 「1950년대 중반 댄스 열풍: 젠더와 전통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53권 2호, 2009, 277-430.
-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걸」, 『대중서사연구』 18호, 2007.12, 119-153.
- 케이트 밀렛, 김전유경 옮김, 『성 정치학』, 이후, 2009.

## Abstract

### Love Story and Reconstruction of Gender system

- Focusing on {The Star of Lost Paradise} written by Kim Nae-seong -

Lee, Sun-Mi

This Article is about {The Star of Lost Paradise} written by Kim Nae-seong as love Story. Political liberatio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of Korea lead the sexual liberation. Many novels enlightened the way of loving, and sexual process. Loving-narrative idealized sexual drive and process in romantics. {The poem of the Hell} written by Park Gyue-ju seems to be tend to this aspect.

And then, {Liberal Woman} written by Jeong Bi-seok is included in this trend. But wommen with liberal mind were called or catagorized as “apres” or “liberal wommen” who strayed away from traditional female gender ideology in nagatively.

On the other hand, {The Star of Lost Paradise} written by Kim Nae-seong represented a new gender, reflected a change in sit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Kang Seok-woon and Kim Ok-young represented the new relation of husband and wife. The relatiohnsip between Kang Seok-woon and Go young-lim represented the changed relation of lovers.

Love Story written by Kim Nae-seong reversed the conservative gender idea. This trend of Kim Nae-seong's novel is comparitive with that of Jeong Bi-seok' novel. (key words : {The Star of Lost Paradise}, Kim Nae-seong, Love Syory, gender system, sexual liberation)